

18. 새 역사의 창조 (671-720)

18. 天武, 持統

天武天皇 上 卽位前紀 天淳中原瀛
真人天皇 天命開別天皇同母弟也
幼曰大海人皇子 生而有岐嶷之姿
及壯雄拔神武 能天文遁甲...天命
開別天皇元年 立爲東宮...天皇勅東宮
授鴻業 乃辭讓之曰... 仍立大友皇
子... 臣今日出家 爲陛下欲修功德
天皇聽之 卽日 出家法服... 至吉野
而居之 是時 聚諸舍人 下383-385

天武天皇 上 元年七月... 因以捧大
友皇子頭...九月...詣于倭京 而御嶋
宮...移岡本宮...營宮室於岡本宮南..
是謂飛鳥淨御原宮 下407

天武天皇 下 二年閏六月 大錦下百
濟沙宅昭明卒 爲人聰明叡智 時稱
秀才 於是 天皇驚之 降恩以贈外小
紫位 重賜本國大佐平位...耽羅遣王
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 新羅遣
韓阿淦金承元 阿淦金祇山 大舍霜
雪等賀騰極 下413

天武天皇 下 三年春正月 百濟王昌
成薨 贈小紫位... 三月 對馬國司守
忍海造大國言 銀始出于當國 卽貢
上 由是 大國授小錦下位 凡銀有倭
國 初出于此時 故悉奉諸神祇 下
415

(1) 진신(壬申)의 난

[26대] 텐무왕은 텐지왕(662-671년)의 친동생으로, 어렸을 때에는 오호시아마 왕자라고 불렸다. 그는 웅장한 체구에, 천문 둔갑에 능하고 무예가 출중했다. 텐지 원년에 동궁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텐지왕이 동생인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눈치 챘다. 671년 10월, 오호시아마는 (텐지 왕이 궁녀의 몸에서 낳은) 오호토모 왕자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자신은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어 출가 수도를 할 생각이라고 형님에게 말했다.

텐무는 자신의 주위에서 시중을 들던 토네리들 만을 데리고, 승려의 법복을 입고 불도를 수행하러 간다며, 요시노 산속으로 들어갔다.

두 달 후, 671년 12월에 텐지왕이 서거했다. 그러자 오호시아마는 바로 다음해인 672년 6월에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켜, 아후미에 근거를 둔 오호토모 왕자(25대 코오분 왕)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 [26대] 텐무왕이 된다. 이를 진신(壬申)의 난이라 부른다.

텐무는 야마토 미야코(倭京)에 잠시 머물다가, 아스카(古京, 飛鳥)의 키요미하라 궁으로 옮겼다. 오늘날의 나라현 타카이치 군의 아스카를 말한다.

(2) 중앙집권 율령국가

텐무는, 코오분 왕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적군에 가담한 수많은 강력한 씨족들을 조정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른 텐무는, 왕의

직접적인 통치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율령제의 기초를 닦았다. 형법과 행정법으로 구성된 법령 제정 작업이 텐무의 재위 기간 중(673-686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마침내 701년에는 타이호오 율령이 공포될 수 있게 되었다.

텐무는, 대대로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해 온 대신들의 위세를 빌리지 않고, 잡역으로 시중을 드는 토네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 이곳저곳의 병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결과적으로 텐무 왕은 강력한 씨족들의 전통적인 특권을 박탈할 수 있었고, 씨족의 수장들은 율령제도하의 조정의 고위 관료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다. 재위 기간 중, 자신이 직접 국정을 총괄하며, 대신이라는 존재를 두지 않았다.

야마토 왕국은 씨족과 베를 통솔하는 수많은 씨족 수장들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다. 씨족과 베는, 순수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확대된 가족 형태로 조직이 되었었다. 텐지왕과 텐무왕은 야마토 왕국을, 중국식으로 형법과 행정법을 기초로 하는, 중앙집권적 율령국가로 전환시키려고 적극 노력했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으로 조성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적인 군사 동원체제 확립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당시는 주변의 국제 정세가, 전통적인 씨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율령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텐무왕이 서거한 날로부터 50여년이 지나 8세기 중반에 이르자, 만주 땅에는 발해(689-926년)라는 완충지대가 확립되었고, 당 나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전국적인 동원체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연이 새로 도입된 율령제도를 유지 해 보려는 군신들의 (강요된?) 열정도 식어 버리게 되었다. 결국 (강력한 씨족에 의존하는 통치체제를 불식하기 위해 만든) 율령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야마토 왕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三國史記 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下 十四年 春正月 ... 王納
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
之 唐高宗大怒 詔削王官爵 ... 以
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 爲
鶴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 右領軍大
將軍李謹行 副之 發兵來討 三上
151

三國史記 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下 十五年 秋九月...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
是... 又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 皆勝
之 三上151

三國史記 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下 十六年 冬十一月 沙飡施
得領船兵 與薛仁貴 戰於所夫里州
伎伐浦 敗績 又進 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三上151

天武天皇 下 四年 春正月... 始興占
星臺... 公卿大夫及百寮諸人 初位以
上 射于西門庭... 祭幣諸社 二月 ...
十市皇女 阿閉皇女 參赴於伊勢神
宮... 詔曰 甲子年諸氏被級部曲者
自今以後 皆除之 又親王諸王及諸
臣 并諸寺等所賜 山澤嶋浦 林野陂
池 前後並除焉... 是月 新羅遣王子
忠元 大監級滄金比蘇 大監奈末金
天沖 第監大麻朴武摩 第監大舍金
洛水等進調 其送使奈末金風那 奈
末金孝福送王子忠元於筑紫... 夏四
月... 遣... 祠風神... 遣... 祭大忌神於
廣瀨河曲... 且莫食牛馬犬猿鷄之肉..
是月 新羅王子忠元到難波... 秋七月
小錦上大伴連國麻呂爲大使 小錦下
三宅吉士入石爲副使 遣于新羅 八
月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

九月 耽羅王姑如到難波 冬十月 ...
自筑紫貢唐人三十口 則遣遠江國而
安置 ...詔曰 諸王以下 初位以上
每人備兵 下417-421

<주18-1>

676년 1월, 우찌쓰쿠니(畿內)와 오오쓰, 나가토를 제외하고는, 국사를 임명할 때 모두 다이센 관위 이하의 사람을 임명토록 했다. 2월, 탐라의 객(사신)에게 배 한 척을 하사했다. 4월, 이제까지 서쪽 지방에 봉해준 호구로부터 세금을 받아오던 모든 왕손들과 신하들은, 그 대신에 새로 동쪽 지방에 봉해준 호구로부터 세금을 받도록 했다. 우찌쓰쿠니 밖의 외지에 있는 자들 중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미, 무라지, 반조 등의 자식들이건 혹은 국조들의 자식들이건 모두 벼슬을 주도록 했다. 그 이하 계층의 서민이라도 특출한 재능이 있는 자들은 벼슬을 주도록 했다. 또 미노 국사에게 조서를 내려, (키 씨족의 오미) 카사마로의 아들을 동쪽 지방으로 보내 그곳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했다. 676년 5월, 미나부찌 산과 호소카하 산에서 풀과 장작을 채취하는 것을 금했다. 우찌쓰쿠니의 산과 들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을 지르거나 나무를 자르는 것을 금지했다. 6월, 모노노베 씨족의 오키미 무라지가 홀연 병사했다. 임신년의 공적을 생각해서 우찌노다이시 관위를 추서 하고, 그를 우지 카미(氏上)로 만들어 주었다.

(3) 텐무의 치세

일본서기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간다.

673년 윤 6월, (다이키무게 관위의) 백제에서 건너온 사택소명이 죽었다. 워낙 총명한 수재로 이름이 났었기 때문에, 왕은 토노세에시 관위를 추서 하고, 이에 더하여 본국의 대좌평 지위를 내려주었다. (야마토 조정은 아마 자신들이 백제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642년에 백제에서 사신으로 왔던 대좌평 사택지적과 같은 지위인 것이다. 탐라는 왕자 3인을 보내 조공을 했다. 탐라왕과 왕자들은 좌평에 해당하는 관위를 받았다. 신라는 한아찬 김승원 등을 보내 텐무의 등극을 치하했다.

674년 1월, 의자왕의 손자인 창성이 죽자, 세에시 관위를 추서 해 주었다. 3월, 쓰시마 국사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은이 출토되었다며 헌상을 했다. 그에게 세에키무게 관위를 하사했다. 야마토 왕국에서 은이 채굴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감사의 표시로, 천신과 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674년, 1월, 문무왕(661-681년)은 당나라에 반기를 든 고구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관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당의 측천무후는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문무왕에게 내려 주었던 당의 관작을 빼앗아 버리고, 유인계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토벌하게 했다. 675년 9월,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으나, 신라군은 이들 당군을 격파하여 전마 3만3백80필과 각종 무기들을 노획했다. 당시 신라군은 당나라 원정군을 상대로 해서 전투를 18번이나 했는데, 모두 이겼다. 676년 11월, 사찬 시득이 수군을 이끌고 소부리주(부여) 기벌포에서 당나라 장수 설인귀와 싸워 처음에는 패하였으나, 그 후 크고 적은 전투를 22회나 거듭 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서기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간다.

675년 1월, 점성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공경대부와 모든 조정 관리들이 활쏘기 대회를 가졌다. 각 신사에 폐

백을 올렸다. 2월, 두 명의 공주가 이세 신궁에 제사를 올리러 갔다. 각 씨족에게 내려준 사유민인 부곡(部曲)을 회수했다. 왕자와 대신들, 그리고 사찰에 내려준 임야와 연못을 회수했다. 신라는 왕자 총원, 대감(급찬) 김비소 등 5인을 보냈다. 송사 2인이 왕자 총원을 쓰쿠시까지 호송해 왔다. 이들 송사들은 쓰쿠시에서 향응을 받고 귀국했다. 4월, 총원 왕자가 나니하에 도착했다. 카제 카미(風神)와 히로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소, 말, 개, 원숭이, 닭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다. 불교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본 사람들이(명치유신 이전까지 지속된) 육식을 안하는 전통이 바로 675년 이후로부터 생긴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675년 7월, (오호토모 씨족의 무라지) 쿠니마로를 대사로 하고, (미야케 씨족의 키시) 이리시를 부사로 하여 신라에 보냈다. 9월, 탐라 왕자 고여가 나니하에 도착했다. 10월, 조서를 내려 왕자들로부터 초위(初位)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기를 비축하라고 명했다. <주18-1>

676년 여름은 몹시 가물었다. 사방에 사신을 보내 모든 천신과 지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폐백을 올리게 했다. 또 남녀 승려들을 청해(불, 법, 승) 삼보에 기도를 올리게 했다. 8월, 친왕 이하 세에키무 관위 이상의 마헤쓰키미, 또 공주, 왕녀, 궁녀들에게 식읍을 봉해 주었다. 왕자와 군신들을 미야코(京)와 우치쓰쿠니에 보내, 백성들의 무기를 검사토록 했다.

10월, (모노노베 씨족의 무라지) 마로를 대사로 하고, (야마시로 씨족의 아타히) 모모타리를 소사로 하여 신라에 보냈다. 신라는 사찬 김청평을 야마토 조정에 보내 정사를 의논하게 했다. 숙신[흑수 말갈 생여진] 사람 7인이 청평등을 따라왔다. 미야코 주변지역에 방생(放生)을 시키고, 사방에 사신을 보내 금광명경과 인왕경을 설하게 했다.

677년 정월에 남문에서 활쏘기 대회를 가졌다. 5월, 백제인 대박사 술모에게 다이센계 관위를 수여하고 30호를 봉해 주었다. 천사(天社)와 지사(地社)의 신에게 바치는 세금은 삼등분 하여, 그 1은 신에게 공양을 하고, 그 2는 신주

天武天皇 下 五年 春正月... 詔曰 凡任國司者 除畿內及陸奥 長門國 以外皆任大山位以下人 二月 耽羅 客賜船一艘 是月 大伴連國摩呂等 至自新羅... 夏四月 祭龍田風神 廣 瀨大忌神... 勅 諸王諸臣被給封戶之 稅者 除以西國 相易給以東國 又外 國人欲進仕者 臣連伴造之子 及國 造子聽之 唯雖以下庶人 其才能長 亦聽之... 詔美濃國司曰 在礪杵郡紀 臣訶佐麻呂之子遷東國 卽爲其國之 百姓 五月... 勅禁南瀨山細川山 並 莫葛薪 又畿內山野 元所禁之限 莫 妄燒折 六月... 物部雄君連急發病而 卒 天皇聞之大驚 其壬申年 從車駕 入東國 以有大功 降恩贈內大紫位 因賜氏上 下423

是夏 大旱 遣使四方 以捧幣帛 祈 諸神祇 亦請諸僧尼 祈于三寶... 八 月 親王以下 小錦以上大夫 及皇女 姬主內命婦等 給食封... 九月 王卿 遣京及畿內 校人別兵 下425

冬十月... 以大乙上物部連摩呂爲大 使 大乙中山背直百足爲小使 遣於 新羅 十一月... 新羅遣沙淩金清平請 政... 是月 肅慎七人 從清平等至 之... 詔近京諸國 而放生... 遣使於四 方國 說金光明經仁王經 下427

天武天皇 下 六年 春正月 射于南 門 ... 下427

五月 勅大博士百濟人率母 授大山 下位 因以封三十戶... 勅 天社地社 神稅者 三分之一 爲擬供神 二分給 神主... 六月... 詔東漢直等曰 汝等黨 族之 自本犯七不可也 是以 從小墾

田御世 至于近江朝 常以謀汝等爲事今當朕世 將責汝等不可之狀 以隨犯應罪 然頓不欲絶漢直之氏 故降大恩以原之 從今以後 若有犯者 必入不赦之例 下429

天武天皇 下 七年冬十月 詔曰 凡內外文武官 每年 史以上 其屬官人等 公平而恪勤者 議其優劣 則定應進階 正月上旬以前 具記送法官 則法官校定 申送大辨官 下433

<주18-2>

678년 10월, 조서를 내려 말 했다: “무릇 중앙과 지방의 문관과 무관들은, 휘하의 후비토(史) 이상 관인들의 공평성과 성실성의 우열을 심사하여, 적절하게 진급시킬 위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정월 10일 이전에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에게 보내도록 하라. 법관은 그 내용을 잘 검토한 후에 대변관(大辨官)에게 상신 하라.”

天武天皇 下 八年二月... 詔曰及于辛巳年 檢校親王諸臣及百寮人之兵及馬 故豫貯焉...夏四月 詔曰 商量諸有食封寺所由而可加加之 可除除之 ... 下435

八月 詔曰 諸氏貢女人 ... 下439

十一月 ... 初置關於龍田山大坂山 仍難波築羅城 下439

天武天皇 下 九年春正月... 忌部首 賜姓曰連... 親王以下 至于小建射南門 下439

(神主)에게 주도록 칙령을 내렸다.

677년 6월,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등에게 조서를 내려 말 했다: “너희들 일족들은 본래 일곱 가지의 죄를 범했다. 스이코 여왕 때(592-628년)부터 아후미 조정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항상 너희들 때문에 신경을 써 왔다. 이제 짐의 대에 이르러 너희들이 지은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야 아타히 씨족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짐도 원치 않기 때문에, 크게 은사를 내려 용서를 한다. 앞으로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 18-2>

679년 2월, 앞으로 2년 후에는 친왕을 위시해서 모든 신하와 조정 관리들의 무기와 말을 검사 할 예정이니, 모두 미리 준비를 해 두라고 명했다. 4월, 식봉을 소유 해 오던 사찰들을 심사해서 식봉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하라고 명했다. 8월, 각 씨족들에게 여인을 바치라고 명했다. 10월, 신라는 아찬 김항나 등을 보냈다. 11월, 타쓰타 산과 오호사가 산에 처음으로 방어진지(關)를 설치했다. 또 나니하에 외성을 축조하였다.

680년 1월, 이미베(忌部)의 오비토인 코비토 에게 무라지의 카바네를 하사하였다. 친왕 이하 세에콘 관위를 가진 자들에 이르기까지 남문에서 활쏘기를 했다. 4월, 이제부터는 전국에서 두 세 개의 큰절을 제외하고는 관가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또 식봉을 준 사찰도 30년이 지나면 식봉을 환수토록 하라고 명했다. 단, 아스카 데라는 그 공적이 컸으므로, 예외적으로 관에서 운영을 하라고 명했다. 사찰의 민영화 인 것 같다.

680년 9월, 다이센 관위 이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검사하고, 말 타고 활쏘기를 시켰다. 11월, 신라는 사찬 김약필과 대나말 김원승을 파견했는데, 3인의 코토나라히 히토(贅言者)가 야마토의 말을 익히기 위해 따라왔다.

오사(譯語)가 (야마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사이의) 통역을 지칭한다면, 습언자란 (한국으로부터 야마토에 와서) 현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익히려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81년 정월에도, 천신과 지신에게 폐백을 올리고, 관위를 주고, (무라지의) 카바네를 하사하고, 식봉을 주고, 활쏘기 대회를 여는 등의 행사가 있었다.

(4) 제기(帝紀)와 상고제사(上古諸事)

681년 3월, 텐무 왕은 6인의 왕자와 6인의 대신들에게 스메라미코토 후미(帝紀)와 이니시에 모로모로 코토(上古諸事)를 기록해서 정하라고 명했다. 공식적인 역사 편찬 작업을 명령한 최초의 기록이다. 오토시마 와 코비토가 친히 집필하고 기록을 했다고 한다.

백제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동안, 야마토 정권의 지배층은 일본열도 주민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일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자신들과 백제 지배층의 근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과시했었다. 하지만 663년에 백제가, 또 668년에 고구려가 당나라의 힘을 빌린 속적 신라에게 정복되어 멸망하자, 일본 땅에서의 야마토 정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내지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던 것 같다.

673-686년 기간 중 왕위에 있었던 텐무(天武)는, 집권 말년에 와서, 야마토 정권의 영속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백제와 절연된 토착정권으로서의 역사를 창조한 다음, 천재적 기억력을 보유한 28세의 토네리(舍人) 히에다 아레(稗田阿禮)에게 그 내용을 암기 시켰다.

새로 만들어진 역사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제 국가들과의 사이에 지배적 내지 적대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자신들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일본 땅에 정착을 했다는 식으로, 일본의 국가기원과 왕족 및 기타 지배층의 근원을 완전히 토착화 시켰다. 이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기본 골격과 상관이 없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기록들은, 6세기 케이타이(繼體: 507-531년)와 킨메이(欽明: 539-571년) 왕들 때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즉 텐무는, 6세기에 편찬된 테이키(帝紀)와 혼지(本

夏四月...勅 凡諸寺者 自今以後 除爲國大寺二三 以外官司莫治 唯其有食封者 先後限三十年 若數年滿三十則除之 且以爲 飛鳥寺不可關于司治 下441

九月... 因以看大山位以下之馬於長柄杜 乃俾馬的射之 下443

天武天皇 下 九年十一月... 新羅遣沙飡金若弼大奈末金原升進調 則習言者三人 從若弼至 下445

天武天皇 下 十年 三月...以詔川嶋皇子 忍壁皇子 廣瀨王 竹田王 桑田王 三野王 大錦下上毛野君三千小今中忌部連首 小錦下阿曇連稻敷難波連大形 大山上中臣連嶋 大山下平群臣子首 令記定帝紀及上古諸事 大嶋 子首 親執筆以錄焉...秋七月...小錦下采女臣竹羅爲大使 當摩公楯爲小使 遣新羅國...祭廣瀨龍田神 下447

安萬呂 墓誌 左京四條四坊從四位 勳五等太朝臣安萬侶以癸亥年七月 六日卒之養老七年二月五日乙巳

神功皇后 攝政六十二年 新羅不朝 卽年 遣裴津彦擊新羅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 沙至比 跪命討之 上395

辭)의 기록들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틀에 맞추어, 새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하지만 고사기의 서문을 읽어보면, 텐무가 죽은 날부터 4반세기, 새 역사는 히에다 아레 라는 사람의 머리 속에만 존재했었던 것 같다.

당시 텐무가 느꼈던 위기감과 새 역사 창조의 필요성은 고사기 서문에 잘 기록되어있다. 즉, 텐무가 했다는 말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듣기에(朕聞) 여러 씨족들의 본가(諸家之所)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테이키(帝紀)와 혼지(本辭)는 사실과 다르고(既違正實), 또 수많은 허위내용이 가필되어 있다고 한다(多加虛僞). 이제 당장 이 틀린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면(當今之時不改其失),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未經幾年), 우리 국가의 기틀(邦家之經緯)과 왕실의 기초가(王化之鴻基焉)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其旨欲滅). 그러므로 테이키와 쿠지(舊辭)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실을 바로잡아(削僞定實), 후세에 전하려 한다.”

(5) 칙어구사(勅語舊辭)

661년에 텐지의 딸로 태어난 겐메이 여왕(707-715년)은, 텐무에게는 조카딸이 되며 동시에 며느리 이었다. 이 겐메이는, 711년 9월 18일 야스마로(安萬侶)에게, 자신의 숙부이며 시아버지인 텐무가 히에다 아레에게 암기시켰던 내용의 역사(勅語舊辭)를, 글로서 정리하도록 명령했다. 야스마로는 그로부터 4개월 이 지난 712년 1월 28일에, 히에다 아레의 구술을 받아 기록한 고사기를 겐메이 여왕에게 바쳤다.

1979년 1월 23일 오후, 야스마로가 묻혔다고 전해 오던 장소로부터 15km 남쪽에서, 차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 야스마로의 묘지(墓誌)가 발굴되었다. 41개의 한자로 된 명문은, 야스마로가 723년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면서(癸亥年七月六日卒之), 우리나라 이두(吏讀)식으로 지(之)자를 동사의 종결형으로 사용했다. 정식 한문과는 전혀 다른, 옛 한국식 용법이다. (이기문, 1972: 48 참조) 일본서기는 신공황후 62년

天武天皇 下 十年 秋七月 大使 ...
小使 遣新羅國 下447

閏七月 皇后誓願之大齋 以說經於
京內諸寺...八月...詔三韓諸人曰 先
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 歸化初
年俱來之子孫 並課役悉免焉... 九
月...凡諸氏有氏上未定者 各定氏上
而申送于理官...冬十月... 新羅遣沙
喙一吉 倉金忠平 大奈末金壹世貢
調...十二月...授小錦下位... 賜姓曰
連 下449-451

조에 백제기를 인용하는데(新羅不奉貴國 遣沙至比跪令討之), 여기서도 “지”라는 한자를 동사의 종결형으로 사용했다.

야마토 조정은 곧이어, 고사기를 토대로 정식 사서 형식의 일본서기를 편찬 시켜, 마침내 720년에 그 완성 본이 나왔다. 그때부터 이 새로운 역사는, 야마토 지배계급 모두에게 주입식으로 교육되었다.

새 역사는, 토착 지배세력으로서의 야마토 왕실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 시켰다. 덕분에, 비록 10세기 이후에 정치적 실권은 상실했지만, 오늘날까지 일본열도의 상징적 지배자로서 그 위치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이 없었다면, 야마토 왕실은 그 실권을 훨씬 더 빨리 상실했을 것이고, 토착 세력은 현재의 왕실을, 상징적으로나마, 지배자로서 군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텐무의 해안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토착 세력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야요이 600년간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아, 가야인 등이 어울려 형성한, 현대 일본어의 조어(祖語)를 공유하는, 원(原) 일본인을 말한다.

(6) 지배층의 재편성

681년 7월, 대사와 소사를 신라에 보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에서 불경을 설하고, 불공을 드렸다. 8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10년 간 더 조세를 면해주기로 했다. 그들과 함께 온 자손 역시 조세와 부역을 면해 준다고 공지했다.

681년 9월, 씨족들 중 그 우두머리인 우지 카미(氏上)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속히 씨족의 수장을 정해서 해당 관리에게 신고를 하라고 명했다. 10월, 신라가 사신을 보냈다. 12월, 토네리 1인을 포함해 모두 10인에게 관위를 주고, 그 토네리 와 후미 아타히(書直) 1인에게(무라지) 카바네를 하사했다. 토네리(舍人)란 왕족의 호위와 신변잡사를 처리하는 낮은 직급의 심부름꾼들이다. 텐무 왕

天武天皇 下 十一年三月... 命境部連石積等 更肇 造新字一部四十四卷... 親王以下 至于諸臣 被給食封 皆止之 更返於公 下451

夏四月 詔曰 自今以後 男女悉結髮 十二月 三十日以前 結訖之 唯結髮之日 亦待勅旨 婦女乘馬 如男夫... 五月 倭漢直等 賜姓曰連... 六月 ... 男女始之結髮... 秋七月... 饗隼人等 於明日香寺之西 下453

八月 且詔曰 凡諸應考選者 能檢其族姓及景迹 方後考之 若雖景迹行 能灼然 其族姓不定者 不在考選之色 下455

十二月 詔曰 諸氏人等 各定可氏上者而申送 亦其眷族多在者 則分各定氏上 並申於官司 然後斟酌其狀 而處分之 因承官判 唯因小故 而非己族者 輒莫附 下457

天武天皇 下 十二年 春正月 奏小墾田儻及高麗百濟新羅 三國樂於庭中... 夏四月... 詔曰 自今以後 必用銅錢 莫用銀錢... 用銀莫止... 秋七月 ... 旱之 百濟僧道藏 零之得雨... 九月... 倭直... 川內漢直... 葛城直... 秦造... 百濟造... 凡三十八氏 賜姓曰連 冬十月... 船史... 阿直史 高市縣主... 并十四氏 賜姓曰連... 十一月 詔諸國習陣法... 十二月... 又詔曰 凡都城宮室 非一處 必造兩參 故先欲都難波 是以 百寮者 各往之請家地 下461

天武天皇 下 十三年 二月 遣淨廣肆廣瀨王 小錦中大伴連安麻呂 及判官錄事陰陽師 工匠等於畿內 令視占應都之地 下461

天武天皇 下 十三年...閏四月... 詔曰 凡政要者軍事也 是以文武官諸人 務習用兵 及乘馬 則馬兵 并當身裝束之物 務具儲足 其有馬者爲騎士 無馬者爲步卒 並當試練 以勿障於聚會 若忤詔旨 有不便馬兵 亦裝束有闕者 親王以下 逮于諸臣 並罰之... 其會集之日 着襪衣而長紐 唯男子者 有圭冠冠 而着括緒禪 女年卅以上 髮之結不結 及乘馬縱橫 並任意也 下463

天武天皇 下 十三年 二月...冬十月 詔曰 更改諸氏之族姓 作八色之姓 以混天下萬姓 一曰 真人 二曰 朝臣 三曰 宿禰 四曰 忌寸 五曰 道師 六曰 臣 七曰 連 八曰 稻置 是日 守山公路公高橋公三國公當麻公 茨城公丹比公猪名公坂田公羽田公 息長公酒人公山道公 十三氏 賜姓曰真人...是日 縣犬養連手繼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下465

十一月...阿倍臣 巨勢臣 膳臣 紀臣 波多臣 物部連 平群臣...中臣連 大宅臣 穗積臣 山背臣...上毛野君 角臣...下道臣...坂本臣... 凡五十二氏 賜姓曰朝臣... 十二月 大伴連 佐伯連 阿曇連 忌部連 尾張連... 土師連...山部連...五十氏 賜姓曰宿禰... 大唐學生土師宿禰甥 白猪史寶然 及百濟役時沒大唐 者猪使連子首 筑紫三宅連得許 傳新羅至 則新羅 遣大那末金物儒 送甥等於筑紫 下 467

은 진신의 란 때, 이 토네리 들의 신세를 크게 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신세를 갚으려 했던 것 같다.

682년 3월, 텐무 왕은 (사카히 베의 무라지) 이하쓰미 등에게 명해 새 글자(新字) 1부 44권을 만들도록 했다. 친왕 이하 제신들에 이르기까지 식봉을 받았던 경우, 이 식봉들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라고 명했다. 4월, 남녀 모두가 그해 안에 머리를 묶도록 하라고 명했다. 또 부녀자도 남자모양 말을 타도록 했다.

682년 5월,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 등에게 무라지의 카바네를 하사했다. 6월, 남자들이 머리를 묶기 시작했다. 7월, 남 큐우슈우 지방의 [말라요 폴리네시안 계통의] 하야히토(隼人)들이 많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들에게, 아스카(明日香)절 서쪽에서, 향응을 베풀어 주었다.

682년 12월, 각 우지들이 자신들의 우지 카미(氏上)를 정해서 상신을 하고, 권족(眷族)이 많은 우지는 몇 개로 나누어서 각각 우지 카미를 정하여 관사(官司)에 신고를 하면, 그 정상을 참작해서 조치를 할 것인데, 다만 자기 씨족이 아닌 자들을 함부로 씨족에 포함시키지는 말라고 명했다.

683년 1월, 궁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음악을 연주했다. 4월 15일, 이후로는 은전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동전을 사용하라고 명했다. 동전이 처음 일본 국내에서 주조 된 것은 겐메이 여왕 때, 즉 와도모(和銅) 원년(708년) 이었다. 그러니 동전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주 무리한 명령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인 18일 날, 은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8월까지 몹시 가물었는데, 백제 승 도장이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다.

683년 9월, 야마토 아타히, 카와찌 아야 아타히, 쿠다라 미야츠코(百濟造) 등 38개 씨족에게 무라지 카바네를 하사했다. 10월, 후네 후비토(船史), 타케치 아가타누시(高市縣主) 등 14개 씨족에게 무라지 카바네를 하사했다. 11월, 각 지방에 명해 진법(陣法)을 익히도록 했다. 12월, 왕은 도성(都城)과 궁실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 나누어 지으려 하는데, 우선 나니하에 도성을 지으려하니, 백관은 각자의 집을 지을 택지를 신청토록 하라고 명했다.

684년 2월, (오호토모 씨족의 무라지) 야스마로, 판관, 록사, 음양사, 공장 등을 우찌쓰쿠니에 보내 도성 자리를 보도록 했다. 윤 4월,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또, 조서를 내려 말 했다: “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이다. 따라서 문무백관은 무기를 사용하고 말을 타는 훈련을 해야한다. 말과 무기와 신변 장신구 등을 충분히 준비하라. 말을 소유한 자는 기사로 하고, 없는 자는 보병으로 하라. 말이나 무기가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에 있거나, 장신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친왕 이하 제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처벌하라.”

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집회가 있어 모이는 날에는, 남녀 모두 저고리와 치마가 이어진 통옷을 입고, 긴 끈을 사용해라. 남자는 관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발목을 묶는 바지(緒褌)를 입어라. 40세 이상의 여자는 머리를 묶거나 말거나, 말을 가로로 타거나 세로로 타거나 마음대로 하라”

(7) 야쿠사 카바네(八色之姓)

684년 10월, 모든 씨족(氏)의 카바네(族姓)를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서, 야쿠사 카바네(八色之姓)를 만들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카바네는 마히토(真人), 두 번째는 아소미(朝臣), 세 번째는 스쿠네(宿禰), 네 번째는 이미키(忌寸), 다섯 번째는 미찌노시(道師), 여섯 번째는 오미(臣), 일곱 번째는 무라지(連), 여덟 번째는 이나키(稻置)라 불렀다.

684년 10월, 13개 씨족이 마히토 카바네를 하사받았다. 11월, 52개 씨족이 아소미 카바네를 하사받았다. 12월, 50개 씨족이 스쿠네 카바네를 하사받았다. 전통적으로 최상의 지위를 유지 해 오던 “오미” 와 “무라지” 카바네의 엄청난 평가절하는, 마치 오늘날 신규 고액권 지폐 남발 현상과 같은, 카바네의 인플레이 현상을 보여준다.

당 나라에 유학을 갔던 학생인 하지(土師) 씨족의 스쿠네 오히, (시라이 씨족의) 후비토(史) 호네, 또 백제가 멸망할 때 당으로 끌려간 무라지 2명이 신라를 거쳐서 돌아왔다. 신라는 대나말 김물유를 보내, 오히 일행을 쓰쿠시로 호

天武天皇 下 十四年二月 大唐人百濟人高麗人 并百四十七人賜爵位 下469

六月 大倭連 葛城連 凡川內連 山背連 難波連 紀酒人連 倭漢連 河內漢連 秦連 大隅直 書連 并十一氏 賜姓曰忌寸...九月... 遣宮處王 廣瀨王 難波王 竹田王 彌奴王於京 及畿內 各令校人夫之兵 下471

冬十月 百濟僧常輝封三十戶...十一月 儲用鐵一萬斤 送於周芳總令所是日 筑紫大宰 請儲用物 純一百匹 絲一百斤 布三百端 庸布四百常 鐵一萬斤 箭竹二千連 送下於筑紫 ... 詔四方國曰 大角小角 鼓吹幡旗 及弩拋之類 不應存私家 咸收于郡家...新羅遣波珍淦金智祥 大阿淦金健勳請政... 十二月 遣筑紫防人等 下473

朱鳥元年 夏四月... 爲饗新羅客等 運川原寺伎樂於筑紫...新羅進調 從筑紫貢上 細馬一匹 騾一頭 犬二狗 鏤金器 及金銀 霞錦綾羅 虎豹皮 及藥物之類 并百餘種...別獻皇后皇太子及諸親王等之物 各有數 下477

朱鳥元年 五月 侍醫百濟人億仁病之臨死 則授勳大壹位 仍封一百戶...勅之 大官大寺 封七百戶 乃納稅三十萬束 下477

朱鳥元年 秋七月 勅 更男夫着脛囊
 婦女垂髮于背 猶如故...八月...遣秦
 忌寸石勝 封幣於土左大神...九月...
 天皇...崩于正宮...百濟王良虞 代百
 濟王善光而誅之 下479-483

持統天皇 稱制前紀 高天原廣野姬
 天皇...天命開別天皇第二女也... 天
 財重日足姬天皇三年 適天淳中原瀛
 真人天皇爲妃... 從沙門天淳中原瀛
 真人天皇 入於吉野 避朝猜忌 語在
 天命開別天皇紀...共誅大友皇子 ...
 佐天皇定天下 每於侍執之際輒言及
 政事 多所毗補 下485

朱鳥元年 九月 ... 天皇崩 皇后臨
 朝稱制 下487

持統天皇 元年九月 新羅遣王子金
 霜林 級倉金薩慕及級倉金仁術大舍
 蘇陽信等 奏請國政...學問僧智隆附
 而至焉 下491

持統天皇 二年秋七月...命百濟沙門
 道藏請雨 不崇朝 遍雨天下 下493

송게 했다.

685년 6월, 야마토 무라지(大倭連), 카즈라키 무라지(葛城連), 야마시로 무라지(山背連), 키 의 사카히토 무라지(紀酒人連), 야마토 아야 무라지(倭漢連), 카후치 아야 무라지(河內漢連), 하타 무라지(秦連), 후미 무라지(書連) 등 11개 씨족에게, 무라지 보다 3단계가 높은 이미키(忌寸) 카바네를 하사했다.

685년 9월, 미야코(京)와 우치쓰쿠니의 인부(人夫)들의 무기를 검사했다. 10월, 백제 승 상휘 에게 30호를 봉했다. 11월, 쓰쿠시의 대재(大宰)가 발이 굵은 비단 100필, 실 100근, 베 300단, 용포 400상, 철 만근, 화살대 2,000연 등을 달라고 청했기에 보내 주었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 크고 작은 뽕 나팔, 북, 피리, 깃발, 활, 투석기 등은 개인 집에 두어서는 안 되며, 모두 해당 고을의 군청에 거두어 두라고 명했다. 그 달, 신라가 사신을 보내 정사를 보고했다.

686년 4월, 신라의 객 등을 접대하기 위해 카하라 절의 가무를 하는 사람들과 악기 등을 쓰쿠시로 운반했다. 신라가 바친 물건들이 쓰쿠시에서 도착 했는데, 양마 1필, 노새 1두, 개 2마리, 금, 은, 조각한 금 그릇과 호랑이 가죽, 비단, 약물, 등 100여 종이었으며, 왕후, 태자 및 왕자들에게 보내는 물건도 많았다.

686년 5월, 백제인 시의(侍醫) 역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곤다이이치 관위를 수여하고 1백호를 봉했다. 다이칸다이(大官大寺)에 7백호를 봉하고, 세금으로 30만 속을 납부 받게 했다. 6월, 카치마로 촌주에게 무라지 카바네를 하사하고, 34인에게 작위를 수여했다.

686년 7월에 칙령을 내려, 남자가 바지를 입고, 부녀자가 등 뒤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것을, 옛날처럼 하라고 명했다. 8월, (하타 씨족의 이미키) 이하키쓰를 보내, 토사 대신에게 폐백을 바치게 했다. 686년 9월 9일, 텐무 왕이 서거했다. 9월 30일, 백제왕 량우가, 부친인 백제왕 선광을 대신하여, 조문을 읽었다.

(8) 지토오 여왕

[27대] 지토오 여왕(687-697년)은 텐지 왕의 둘째 딸이었으며, 자신의 삼촌인 텐무의 왕후였다. 그녀는, 조정 내의 시기하는 사람들을 피해 사문이 된 텐무를 따라, 요시노에 숨어살다가, 천명을 기다려 거사를 했다. 그녀는 왕을 따라 동국으로 피난을 하고, 무리를 모아 계책을 세웠다. 미노의 장군들과 야마토의 호걸들과 함께, 자신의 이복 남동생인 오호토모 왕자를 주살했다. 그녀는 왕을 보좌하여 정사를 논하고, 천하를 다스린 여걸이었다. 687년은 그녀의 재위 원년이다.

687년 9월, 신라는 왕자 김상림 등 사절단을 보내 국정을 논의했다. 학문승 지룽이 따라왔다. 688년 7월, 몹시 가물어, 백제 사문 도장에게 명해 비를 청하게 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온 천하에 비가 쏟아졌다.

689년 6월, 쓰쿠시 대제(大宰)에게 명하여, 학문승 명충, 관지 등에게 각각 풀솜 140근을 주어, 신라에 있는 스승과 벗들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각 관청에 법령 1부 22권을 나누어주었다. 7월, 활쏘기 연습장들을 만들게 하였다. 8월, 여왕이 활 쏘는 것을 관람했다. 윤 8월, 국사들에게 명하여 호적을 만들고, 부랑자를 단속해 잡아들이고, 각 지역마다 병사의 4분의1을 정하여 무술을 훈련시키라고 명했다. 9월, 쓰쿠시의 새로 만든 성들을 감찰시켰다. 11월, 시중에서 세 가지 무기를 익혔다는 자를 데려다 칭찬을 하고 선물을 주었다.

690년 정월, 왕후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키나이의 천신과 지신들에게 폐백을 드렸다. 2월, 내전에서 불공을 드렸다. 9월, 당나라에 보낸 학문승 지중, 의덕, 정원, 또 백제가 망할 때 당군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군정(軍丁) 오호토모베 씨족의 하카마 등이, 신라의 송사를 따라, 쓰쿠시로 돌아왔다. 11월, 처음으로 송 나라 원가력(元嘉曆)과 당 나라 의봉력(儀鳳曆)을 시행토록 했다.

691년 3월, 조서를 내려 말 했다: “만일 백성 중에 아우가 형을 위해 팔렸으면 양민에 속하게 하라. 만일 자식

持統天皇 三年六月...詔筑紫大宰粟田真人朝臣等 賜學問僧明聰觀智等爲送新羅師友綿各一百四十斤... 班賜諸司令一部二十二卷 秋七月 ... 詔左右京職及諸國司 築習射所 ... 秋八月 百官會集於神祇官 而奉宣天神地祇之事... 觀射 潤八月 詔諸國司曰 今冬 戶籍可造 宜限九月 紕捉浮浪 其兵士者 每於一國 四分而點其一 令習武事 下499

持統天皇 三年九月 遣...等於筑紫.. 且監新城... 十一月 於中市 褒美追廣貳高田首石成之閑於三兵賜物 下501

持統天皇 四年春正月...皇后即天皇位...班幣於畿內天神地祇 及增神戸田地...二月...設齋於內裏 ... 下501

九月...大唐學問僧智宗義德淨願 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 從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 還至筑紫... 冬十月... 詔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曰...救百濟之役 汝爲唐軍見虜...十一月 奉勅始行元嘉曆與儀鳳曆 下505-507

持統天皇 五年三月 ... 詔曰 若有百姓弟爲兄見賣者 從良 若子爲父母見賣者 從賤 若准貸倍沒賤者 從良 其子雖配奴婢所生 亦皆從良 夏四月 ... 賜大學博士上村主百濟大稅一千束 以勸其學業也 下509

八月 詔十八氏 大三輪 雀部 石上 藤原 石川 巨勢 膳部 春日 上毛野 大伴 紀伊 平群 羽田 阿倍 佐伯 采女 穗積 阿曇 上進其祖等墓記...

九月 賜音博士大唐續守言 薩弘恪
書博士百濟末士善信 銀人二十兩
下511

持統天皇 六年冬十月 授山田史御
形務廣肆 前爲沙門 學問新羅 ...
新羅遣... 下519

持統天皇 七年三月...賜大學博士勤
廣貳上村主百濟 食封三十戶 以優
儒道... 賜擬遣新羅使直廣肆息長眞
人老 勤大貳伴宿禰子君等 及學
問僧辨通 神叡等 純綿布 各有差
又賜新羅王賻物 下521

冬十月 詔 自今年 始於親王 下至
進位 觀所儲兵 淨冠至直冠 人甲一
領 大刀一口 弓一張 矢一具 鞞一
枚 鞍馬 勤冠至進冠 人大刀一口
弓一張 矢一具 鞞一枚 如此預備...
十二月 遣陣法博士等 教習諸國 下
523

持統天皇 八年十二月 遷居藤原宮
下527

持統天皇 十年五月 詔大錦上秦造
綱手 賜姓爲忌寸 下531

持統天皇 十一年六月 詔讀經於京
畿諸寺...班幣於神祇...八月... 禪天
皇位於皇太子 下533-535

이 부모를 위해 팔렸으면 천인에 속하게 하라. 빛 때문에 천인이 된 자는, 양민에 속하게 하라. 노비를 아내로 하여 낳은 소생이라도 다 양민에 속하게 하라.” 4월, 대학박사 우에스구리 쿠다라의 학업을 권장하는 뜻으로 세수 1,000속을 주었다.

691년 8월, 지토오 여왕은 18개 씨족들에게 그들 조상들 묘의 기록을 바치라고 명했다. 9월, 당나라 음박사(音博士) 속수언 과 살흥격, 서박사(書博士) 백제 말사 선신 등에게 각각 은 20량을 하사했다.

692년 10월, (야마다 씨족의 후비토) 미카타는 일찍이 사문이 되기 위하여 신라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무쿠와우시 관위를 수여했다. 11월, 신라가 사신을 보냈다.

693년 3월, 대학박사 우에스구리 쿠다라에게 식봉 30호를 주었다. 그는 유학과 도교에 뛰어났다. 신라에 사신과 학문승을 보내고 신라왕에게 선물을 전했다. 10월, 조서를 내려 말했다: “금년부터는, 위로는 친왕을 위시하여 아래로는 신관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검사하겠다. 자아 관에서 지키 관까지는 각각 갑옷 1벌, 대도 1개, 활 1개, 화살 1구, 활 쓸 때 착용하는 가죽 팔찌 1매와 말을, 곤 관으로부터 신 관까지는 각각 대도 1개, 활 1개, 화살 1구와 활 쓸 때 착용하는 가죽 팔찌 1매를 미리 준비하여라.” 12월, 진법 박사를 각 지방에 보내 진법을 가르치게 했다.

694년 12월, 후지하라(藤原) 궁으로 천도를 했다. 오늘날 나라현의 카시하라(橿原)시에 해당한다.

696년 5월, (다이키무자우 관위의) 하타 씨족의 (미야츠코) 쓰나테 에게 이미키 카바네를 하사했다. 697년, 지토오 여왕은 (자신의 누이 동생인 동시에 며느리인) 겐메이 여왕(707-715년)의 아들이며 자신의 손자인 몬무(697-707년)에게 양위를 했다.

이것으로 일본서기의 기록은 끝을 맺는다.

(9) 일본서기 이후

일본서기의 뒤를 잇는 것이, 697년 몬무 원년부터 791년 칸무 10년까지 9대 94년을 기록한 속일본기 이다. 나라시대(710-794년)의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된다. 792년 칸무 11년 정월부터 833년 2월까지 기록을 한 것이 일본후기인데, 총 40권 중 10권 밖에 남아있지 않다. 칸무는 794년에 오늘날의 교토 땅에 왕도를 정하고 헤이안쿄오라 불렀다. 833년부터 850년까지 기록을 한 것이 속일본후기 이다. 850년부터 858년까지를 기록한 것이 문덕천황실록 이고, 858년부터 887년까지 기록을 한 것이 삼대실록이다.

속일본기의 편찬책임자 후지와라 쓰쿠타다(藤原繼繩, 727-796년)는 완성되기 수개월 전에 죽었다. 편찬이 끝나자, 함께 작업을 해오던 스가노 마미치(菅野眞道, 741-814년)가 속일본기를 칸무(781-816년)에게 제출했다. 속일본기는 조정의 조서들을 고전 한문체로 기록하지 않고, 센묘오타이(宣命體)로 기록을 했다. 센묘오란 임금이 구두로 발표하는 조칙을 말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면 센묘오타이 라는 서식이 된다.

속일본기 칸무 9년 조(790년)를 보면, 쓰무라지(津連) 마미치가 백제 왕자 인정, 원신, 충신 등과 함께 어울려, 표를 올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이다: “저희들은 본계가 백제 근구수왕 에서 나왔습니다. 오오진 왕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학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 모셔 오게 했기에, 당시 백제왕은 왕실 종족 중에서 택하여 그 손자를 보냈습니다. 오오진 왕께서는 그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고, 닌토쿠 왕은 그의 맏아들을 근시로 삼았습니다. 그 후 손 왕진이는 비다쓰왕 때, 고구려 사신이 가지고 온 까마귀 날개에 쓴 표를 읽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저의들의 선조가 이렇듯 조정에서 오래 동안 문필의 업을 이어오고 있으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무라지 카바네를 아소미(朝臣)로 바꾸어 주십시오.” 칸무는 이들 왕인의 후손들에게 스가노(菅野) 아소미 라는 카바네를 하사 해 주었다.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九年七月 辛巳 左中弁五位上兼木工頭百濟王仁貞... 百濟王元信... 百濟王忠信 圖書頭從五位上兼東宮學士...伊豫津連眞道等上表言 眞道等本系 出自百濟國貴須王 貴須王者 百濟始興第十六世王也 夫百濟大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授籙 惣諸韓而稱王... 其後...應神天皇 命上毛野氏遠祖荒田別 使於百濟搜聘有識者 國主...王...擇採宗族 遣其孫辰孫王 隨使入朝 天皇嘉焉 特加寵命 以爲皇太子之師矣 於是 始傳書籍 大闡儒風 文教之興...仁德天皇 以辰孫王長子太阿郎王爲近侍... 始爲三姓各因所職 以命氏焉 葛井船津連等 卽是也 逮于...敏達天皇御世 高麗國 遣使上烏羽之表 群臣諸史莫之能讀 以辰介進取其表 能讀巧寫... 又詔東西諸史曰 汝等雖衆不及辰介眞道等先祖 委質聖朝 年代深遠 家傳文雅之業...眞道等 生逢昌運 ... 伏望 改換連姓 蒙賜朝臣 於是 勅因居賜姓菅野朝臣 續五 472

聖武 神龜四年 九月 渤海郡王使首領高齊德等八人 來着 續二182

四年 十二月 渤海郡者舊高麗國也 續二186

五年 正月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藝啓...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續二188

神龜五年 四月 天皇敬問渤海郡王省啓舊知 恢復舊壤 聿脩曩好 朕以嘉之 續二194

(10) 발해의 등장

한반도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라와 야마토 조정은 모두 당나라(618-907년)의 팽창정책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당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발생한 공통 이해관계 때문에, 바로 668년부터, 텐지와 텐무는 원한관계를 접어두고 신라 조정에 사절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라도 공물과 함께 사신을 보냈다. 양국은 국제 정치적인 의견 교환과 폭넓은 친선 교류를 지속했다. 이들 사이의 전략적인 제휴관계는 730년대까지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야마토 조정이 600년부터 649년까지 50년 동안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것은 네 번뿐 이었다. 그런데 668-695년의 28년 동안에는 신라에 무려 아홉 차례나 사신을 보냈고, 700-740년의 41년 동안에는 모두 11번이나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 후, 한참 틈을 드리다가, 752년과 753년에 한차례씩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 이후 779년까지 25년간에는 단 한차례도 신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말갈족과 함께 699년에 세운 발해가, 만주지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732년경에 와서는 당나라의 북동쪽 국경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자 당나라는 즉시 신라와 화해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733년, 신라는 당의 발해 공격을 도왔고, 당은 신라 조정에 금은보화를 보냈다. 735년, 당나라는 신라를 한반도의 지배자로 공인을 해 주었다.

727년, 발해의 사신이 최초로 야마토 조정에 도착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발해란 옛날의 고구려이고, 발해사신은 자신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부여의 습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제계 야마토 조정에 온 발해 사신은, 신생국가 내의 말갈족 성격을 되도록 덮어두고, 부여-고구려의 성격만을 강조한 것 같다. 739년에 발해로부터 두 번째의 사신이 도착했다. 야마토 조정이 처음으로 발해에 사신을 보낸 것이 728년이다. 야마토 조정은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옛날처럼 우호를 다시 맺게 된 것을 치하했다.

발해라는 완충지대의 출현으로, 신라는 당의 직접적인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 야마토 조정 역시 신라와 제휴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제휴는 끝이 났고, 전통적인 적대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은 704년에 각 지역의 기병을 징발하여 신라사신을 맞이하게 했다. 714년에는 키나이 지역의 기병 990명을 뽑아서 신라 사신을 영접하게 했다. 그러던 것이, 735년에 와서는 신라 사절을 접견도 안 하고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게끔 되었다. 급기야 737년에는 신라 정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후, 743년과 752년에는 신라 사신의 무례를 탓하는 기사가 다시 나온다. 신라에 사신을 전혀 안 보내던 기간 중(754-778년)인 759년에는, 또 신라 정벌이라는 표현이 속일본기에 등장한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재빨리 반영되는 것이다.

야마토 조정이 신라에 사신을 전혀 안 보내던 그 25년 간(754-778년), 발해에는 네 차례나 사신을 보냈다. 796-810년의 15년간에도 네 번을 더 보냈다.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의 세이와(清和) 조오간(貞觀) 11년(869년) 6월조에는, 신라 해적(新羅海賊)이 배 두 척을 타고 와서 부젠(豊前)의 비단을 약탈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요오제이(陽成) 원경(元慶) 5년(881년) 11월조에는, 신라 해적이 다자이후(大宰府)의 공면(貢綿)을 약탈해 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야마토 조정은 600년부터 수나라(581-618년)를 비롯해서 당나라와 직접적인 왕래를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백제를 통해 간접적인 교류를 했었고, 대륙으로부터의 문물의 도입은 거의 전적으로 백제에 의존을 했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 중국에 이르는 해로라는 것은, 백제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고구려의 국경에 가까워지면 방향을 틀어 황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야마토 조정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670년부터 701년까지 31년 동안 견당사의 파견을 중단했었다. 이때가 바로 당나라의 침략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702년부터 새삼 견당사를 파견하기 시작해, 838년

文武 慶雲二年十一月...徵發諸國騎兵 爲迎新羅使也 續三90

元明 和銅七年十一月... 新羅國遣重阿淦金元靜等廿餘人朝貢 差發畿內七道騎兵合九百九十 爲擬入朝儀衛也 續三218

聖武 天平七年 二月 新羅使金相貞入京...問新羅使入朝之旨 而新羅國輒改本號 曰王城國 因茲 返却其使 續二286

聖武 天平九年 二月 遣新羅使奏新羅國 失常禮 不受使旨 於是召...令陳意見... 或言 遣使問其由 或發兵加征伐...夏四月 遣使於伊勢神宮 大神社 筑紫住吉 八幡二社及香椎宮 奉幣 以告新羅無禮之狀 續二310-312

聖武 天平十五年 四月...新羅使 調改稱土毛 書直注物數 稽之舊禮 大失常禮 ... 續二418

淳仁 天平寶字 三年 六月 令大宰府造行軍式 以將伐新羅也 續三320

淳仁 天平寶字 三年九月 造船五百艘...爲征新羅也 續三328

清和 貞觀十一年六月...大宰府言... 新羅海賊 乘艦二艘 來博多津 掠奪 豊前國年貢絹綿 日本三代實錄

까지 (137년 동안) 아홉 차례나 견당사를 보내게 된 것이다.

(11) 국풍화(國風化)

속적 신라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또 양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견당사들은 황해 대신에 그 험난한 남지나해를 건너 오늘날의 상하이-제지앙 지역에 도달하는 최남단 해로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원시적인 항해술 때문에, 항해도중 번번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급기야는 중국으로부터의 소위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라는 것이,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838년을 끝으로, 견당사 파견이라는 방법을 통한 교류를 중단하게 되었다.

838년 이후 수 백여 년 간, 중국 대륙과의 교류는 없었다. 그 때부터, 중국문화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눈을 국내로 돌려 토착적인 것을 강조하는, 소위 문화의 국풍화(國風化)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귀족과 승려들 사이에서는 만요가나(萬葉假名)의 초서체를 단순화시킨 히라가나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한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표음문자로 사용하는 카타카나도 출현했다. 카나의 사용으로 국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드디어 1008년경에는,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라는 궁중여인에 의해, 그 유명한 겐지 이야기(源氏物語)가 쓰여졌다.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했고, 중국은 960년에 북송이 등장할 때까지, 혼란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한반도의 신라는 경순왕을 끝으로 935년에 망하고, 고려 태조 왕건(918-943년)이 등장한다. 부여-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는 발해도, 926년에 (몽골-선비 계통인)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916-1125년)에게 멸망을 당했다.

북송은 960년에서 1127년까지 계속되었고, 남송이 1279년까지 그 뒤를 이었다. 요 나라는 북만주 여진족(黑水靺鞨, 生女眞)의 금나라(1115-1234년)로 이어졌다. 1153년, 금나라는 일찍이 거란족이 터를 닦아 놓은 옌징(燕京)으로

천도를 했다. 지금의 북경인 것이다. 그 후, 몽골의 원(1206-1368년) 제국이 북경에 자리를 잡게 된다. 세계사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는 것이다.

일찍이 북쪽의 흉노와 동이들에게 시달리던 한(漢)족들의 수도는, 산악 지대인 웨이하 강변의 장안(서안)과 그로부터 멀지 않은 황하 강변의 낙양을 오락가락 했었다. 그러나 여진과 몽골은, (북)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나자, 자신들의 본거지에 좀더 가까운, 만리장성 바로 아래의 북경 평지에 수도를 정한 것이다.

애당초 몽골이나 만주 땅은 한(漢)족이 영구적으로 정복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단지 그 일 부분이, 한 나라 때와 당 나라 때, 일시적으로 한족에게 무력으로 정복당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근세에 와서 이들 지역이 중국에 포함된 것은, 한족이 (흉노-동이족들이 세운) 요-금-원-청 등에게 정복을 당할 때마다, 피정복자의 위치에서, 이들 정복자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중국화 시켰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무력으로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을 당함으로써 정복자를 정복을 한 셈이다. 예컨대, (여진족이 내몽골-만주 땅의 거란-조선족을 흡수하면서 세운) 후금-청나라가 중국대륙을 정복하고 통일을 안 했다면, 지금도 내몽골-만주지역이 중국과는 별개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소위 중국을 정복했었다는 흉노-동이족들이 모두 중국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날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가 안 된 것은, 우리나라가 한족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Chapter 19 begins at 497.